

# 제 19 장

## 콩 수급 동향과 전망

김대석\* · 한석호\*\*

### 목 차

- |                             |                 |
|-----------------------------|-----------------|
| 1. 국내 콩 <sup>1)</sup> 수급 동향 | 2.1. 국산 콩 가격 동향 |
| 1.1. 생산 동향                  | 2.2. 수입 콩 가격 동향 |
| 1.2. 수입 동향                  | 3. 콩 수급 및 가격 전망 |
| 1.3. 소비 동향                  | 3.1. 2011년 전망   |
| 2. 국내 콩 가격 동향               | 3.2. 중장기 전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orihunt@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hohan@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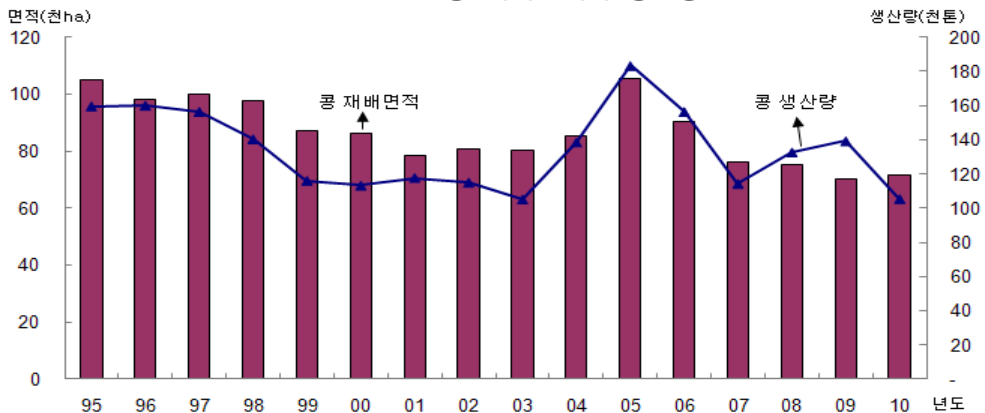
1) 본고에서 다루는 콩은 사료용과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을 제외한 식용콩으로 HSK코드 1201009010 (콩나물용)과 1201009090(기타 일반콩)을 전망함.

# 1 국내 콩 수급 동향

## 1.1. 생산 동향

- 콩은 단일 작물로는 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국산콩 재배면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일시적 증가를 보였다. 2010년에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논콩 위주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 95년 이후 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 또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논콩 차등수매제를 실시하면서 재배면적의 증가로 콩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차등수매제 폐지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태풍피해가 없었고 기상여건이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의 경우는 반대로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지만 태풍피해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2010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7만 1,422ha이며 생산량은 전년대비 24.3% 감소한 105,354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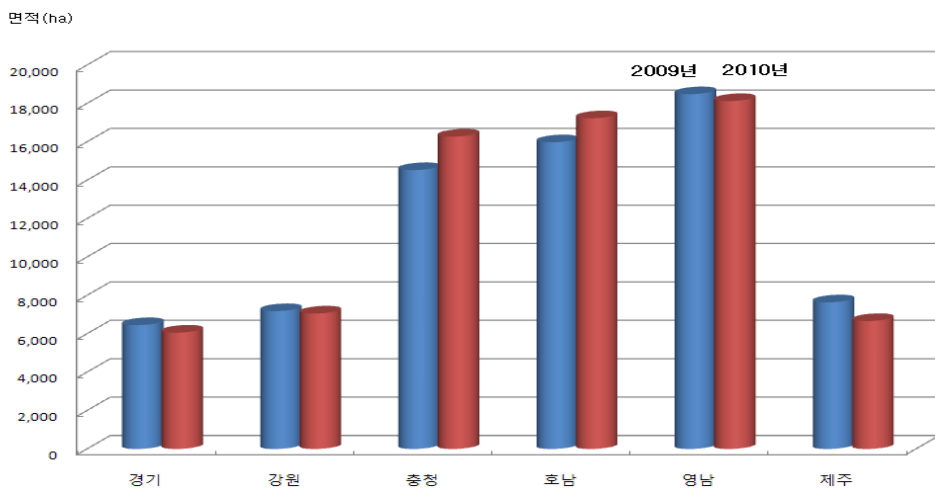
그림 19-1.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통계청.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과 호남지역이 각각 전년 대비 12.0%, 7.8% 증가하였고 면적이 감소한 지역으로 제주가 12.7%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그 밖의 지역으로 경기 6.0% 영남 1.9% 강원 1.7%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12.7% 감소한 6,666ha로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원인으로는 제주지역의 경우 월동 채소작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콩에서 채소작물로 전환한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호남지역은 벼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으로 2010년 실시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논콩의 재배면적의 증가하였고, 2009년 국산 콩 가격이 좋아 일부 주산지에서 발콩의 재배면적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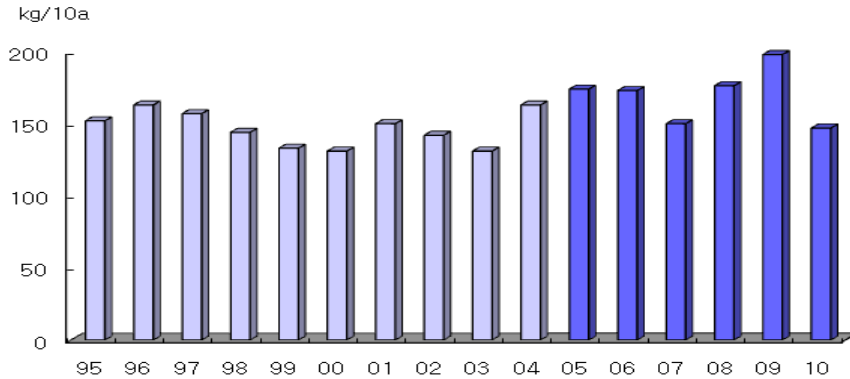
그림 19-2. 지역별 콩 재배면적 동향



자료: 통계청.

- 2010년에는 8월초까지 기상은 적절한 강우와 토양수분이 양호하여 출하율 및 m<sup>2</sup>당 개체수가 평년수준 이상이었으나, 9월 이후 기상 악화와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후기 생육이 좋지 못하였다.
- 잦은 강우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병충해와 썩짐이의 형성이 많아 단수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전년대비 25.8% 감소한 147kg/10a로 최근 5년동안 최저 단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19-3. 연도별 콩 단수 추이



자료: 통계청.

- 2010년 콩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6% 증가하였지만 단수가 25.8% 감소하여 2010년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24.3% 감소한 10만 5,345톤이었다. 지역별 생산량은 전남이 1만 9,304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만 7,501톤, 충북 1만 4,996톤으로 이들 세 지역은 콩의 주산지로서 전체 콩 생산량의 49.2%를 차지하고 있다.
- 생산량 감소가 특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 36.6%, 경북 31.3%로 재배면적의 감소와 기상피해가 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생산량은 대부분 감소하였지만 전북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유는 2009년에 비해 단수는 감소하였지만 재배면적이 25% 증가하여 전북의 생산량은 0.9% 증가하였다.

표 19-1. 2010년 지역별 콩 생산량

단위 : 톤, %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009년	13,736	14,947	17,738	12,402	6,482	24,488	25,478	9,344	14,637	139,252
2010년	8,710	10,730	14,996	8,917	6,543	19,304	17,501	7,435	11,210	105,345
증감률	-36.6	-28.2	-15.5	-28.1	0.9	-21.2	-31.3	-20.4	-23.4	-24.3

자료 : 통계청.

- 2010년 지역별 작황상황에 따른 단수를 기준으로 전체 콩나물 콩 생산량을 추정하면 올해 콩나물 콩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3.6% 감소한 1만

2,060톤으로 보인다. 2010년산 전체 콩 생산량에서 콩나물 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로 추정된다.

- 콩나물 콩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남, 전북 지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 콩나물 콩의 재배면적은 주산지인 제주지역이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전남이 15%, 전북이 1%를 점유하고 있다.
- 제주의 경우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채소작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채소작물로 전환한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역은 안덕, 한경, 동부지역은 구좌, 제주시가 주요 산지이다. 2010년 작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보이며 특히 서부지역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2. 콩나물 콩 생산동향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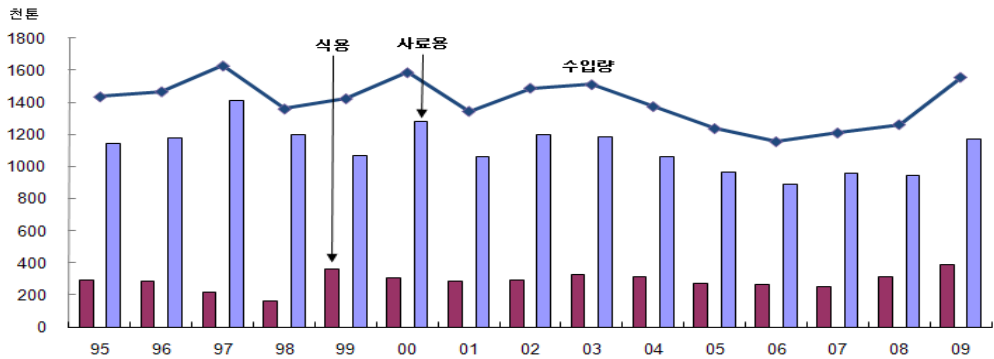
연도	전남		전북		제주		합계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2006	425	760	39	64	5,249	7,820	5,712	8,645
2007	511	782	54	80	5,195	5,212	5,760	6,073
2008	640	1,222	84	137	5,973	10,964	6,696	12,322
2009	853	1,680	88	164	7,257	13,934	8,197	15,778
2010	1,152	1,292	85	129	6,333	10,639	7,570	12,060

주: 1) 제주지역 면적의 95% 가량을 콩나물 콩으로 추정, 이외 전남, 전북 재배면적의 경우 국립종자원 보급종의 파종면적 6kg/10a를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치임.  
 2)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 1.2. 수입 동향

- 2000양곡연도 이후 전체 콩 수입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수입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9양곡연도 콩 수입량은 126만 톤이며, 이 중 식용 비중은 24%, 사료용 비중은 76%이다.

그림 19-4. 양곡연도별 식용 및 사료용 콩 수입량



주: 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식량정책과.

- 2009년산 식용 콩 수입량은 29만 2,237톤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국영무역은 전년대비 6% 증가한 27만 3,247톤, 민간 수입량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1만 8,990톤 이었다. 국영무역과 민간 수입량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산 콩 가격이 상승하여 일부 수요처들이 수입 콩의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표 19-3. 식용콩 TRQ와 민간수입 실적

단위: 톤

양곡연도	구분	전년 11월	전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2009	국영	22,541	27,800	28,102	30,705	31,207	30,914	5,700	28,146	23,420	22,380	2,722	5,305	258,942
	민간	1,576	2,510	1,947	858	1,658	1,771	1,016	1,137	507	1,473	847	772	16,072
	합계	24,117	30,310	30,049	31,563	32,865	32,685	6,716	29,283	23,927	23,853	3,569	6,077	275,014
2010	국영	9,115	46,746	-	25,180	30,588	33,350	27,889	31,424	4,939	4,896	35,051	24,069	273,247
	민간	1,136	1,425	1,470	529	1,742	3,389	3,175	1,834	1,736	511	530	1,512	18,990
	합계	10,251	48,171	1,470	25,709	32,330	36,739	31,064	32,355	5,882	5,407	35,581	25,581	292,23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두류관리팀, 한국무역협회.

-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산 일반 콩 수입량은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8월까지 일반 콩 수입물량은 전년 대비 15.6% 감소하였으나, 8월 이후 기상악화로 인하여 2010년산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확기 국산 콩 산지거래가격이 상당 수준 높게 형성되어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9~10월의 일반 콩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별로는 일반 콩의 경우 2010년 8~10월까지 기간 동안 일반 콩의 전체 수입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4.5%이며 이외에 중국이 3.2% 캐나다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9-4. 일반 콩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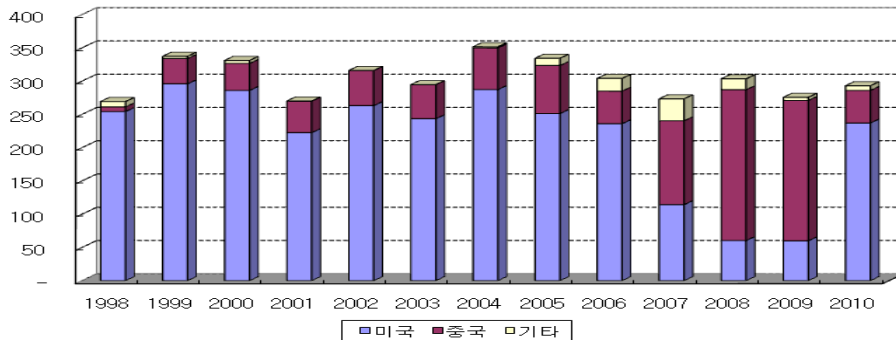
단위: 톤

양곡연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2009	20,758	24,328	28,439	29,800	28,557	25,805	905	26,500	21,124	21,201	3,079	5,485	235,981
2010	5,769	40,371	545	25,472	26,725	27,375	25,407	30,639	5,566	3,899	35,035	24,235	251,03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두류관리팀, 한국무역협회.

- 주요 식용 콩 수입국을 살펴보면, 2006양곡연도까지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 비중에 78%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말 국제유가와 국제 콩 가격이 상승하면서 2007양곡연도부터는 중국산 콩의 수입 비중이 높아졌다.
- 2010양곡연도 상반기에 국제 콩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중국내 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미국산 콩이 중국산 콩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다시 미국산 콩이 전체 수입의 81%, 중국산 콩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9-5. 식용콩의 국가별 수입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0년 콩나물 콩 수입량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4만 178톤이었다. 2009년의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전체 물량의 96.9%, 미국3.1%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은 중국이 전체 물량의 83.2%가 수입되었으며 미국이 14.6%, 기타 2.3%를 차지하고 있다.

- 중국산 콩나물 콩이 수확기 잦은 강우 및 저온현상으로 제품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콩나물 발아율이 좋지 못하여 중국산 수입물량이 줄고 미국산 수입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9-5. 콩나물 콩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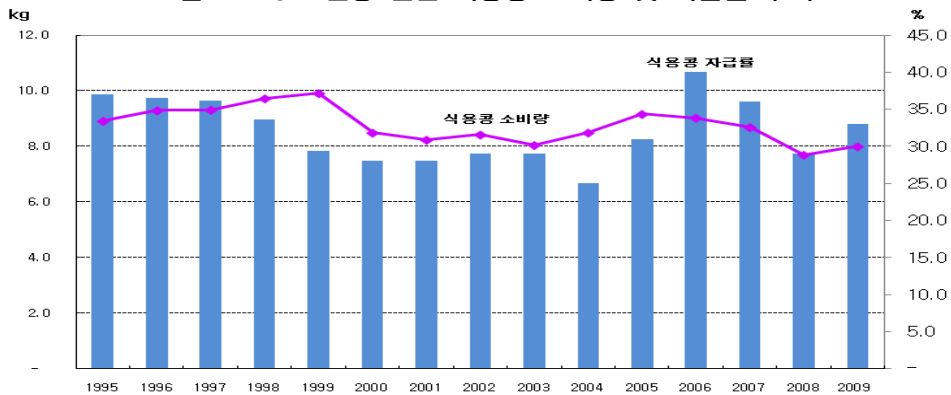
구분	중국	미국	기타	수입량
2009	40,686(96.9)	1,288(3.1)	0(0.0)	41,974
2010	33,410(83.2)	5,847(14.6)	920(2.3)	40,177

자료: 한국무역협회.

### 1.3. 소비 동향

- 2009양곡연도 식용콩 자급율은 32.5%로 지난 2008년보다 29%보다 3.5%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다. 2009양곡연도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8.0kg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그림 19-6. 1인당 연간 식용콩 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주: 식용콩 소비량 = 가공소비량 + 밥밀용소비량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양정자료, 통계청.

- 국산 콩 가공품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두부시장은 2004년 3,770억 원에서 2009년 4,500억 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 포장두부는 연평균 12.7% 증가하여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두부제품 중 포장두부가 전체 두부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약 62%로 추정된다. 포장두부는 대부분 국산콩으로 만든 것으로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금액측면의 비중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6. 두부시장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추정)
포장두부 시장	1,660 (44.0)	2,050 (51.4)	2,250 (54.0)	2,500 (58.0)	2,660 (60.0)	2,800 (62.0)
전체두부 시장	3,770	3,990	4,170	4,310	4,430	4,500

주: ( )안은 전체두부시장에서 포장두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식품유통연감 2010.

- 2010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콩의 용도별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두부용이 62.6%로 가장 많았고 장류용이 21.1%, 두유용은 14.4%, 메주용은 2.1%, 관수용 0.1% 로 나타났다.

표 19-7. 국영무역 식용콩의 용도별 공급실적

단위: 톤, %

생산 품목	업체수	'08	'09	'10
두 부	2,029	116,497(60.2)	135,930(64.7)	126,012(62.2)
장 류	120	44,917(23.2)	41,572(19.8)	42,717(21.1)
두 유	12	28,200(14.6)	27,798(13.2)	29,234(14.4)
메 주 등	52	3,552(1.8)	4,453(2.1)	4,307(2.1)
관수용	-	327(0.1)	290(0.1)	301(0.1)
합 계	2,213	193,493(100)	210,043(100)	202,571(1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콩나물의 소비량을 알아보기 위해 콩나물콩 공급량(국내 콩나물콩 생산량 + 콩나물콩 수입량)에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풍산콩의 수율 및 발아율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추정해본 결과 국민 1인당 연평균 6.8kg의 콩나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9-8. 연간 콩나물 소비량

단위: kg

연도	2007	2008	2009	2010
1인당 소비량	5.9	6.8	7.5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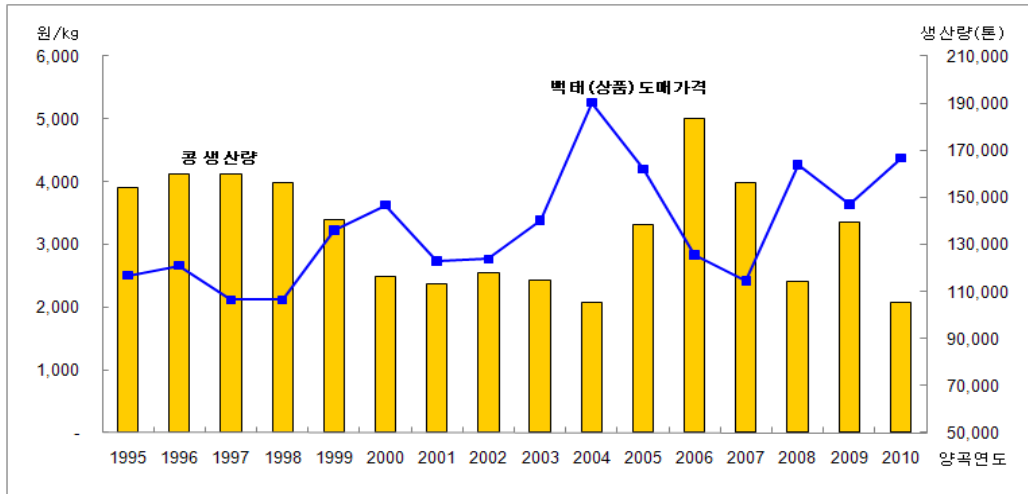
주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 2 국내 콩 가격 동향

### 2.1. 국산 콩 가격 동향

- 1995양곡연도부터 2010양곡연도까지 콩 생산량이 연평균 2.7% 감소함에 따라 콩 도매가격은 연평균 4.1% 상승하였다. 1995~2010양곡연도 콩 생산량과 도매가격의 상관계수는 -0.67이다.
- 콩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2년부터 논콩 차등수매제가 실시되면서 2004양곡연도부터 2006양곡연도까지 콩 생산량은 연평균 20.4% 증가하였다. 최근 콩 가격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9-7. 콩 도매가격 동향(백태 상품, 양곡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0양곡연도 국산 콩(상품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4,374원/kg으로 전년도보다 20.2% 높았다. 국산 콩 도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8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이월 재고물량의 부족과 9월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조생종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10월부터 급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표 19-9. 콩 도매가격 동향(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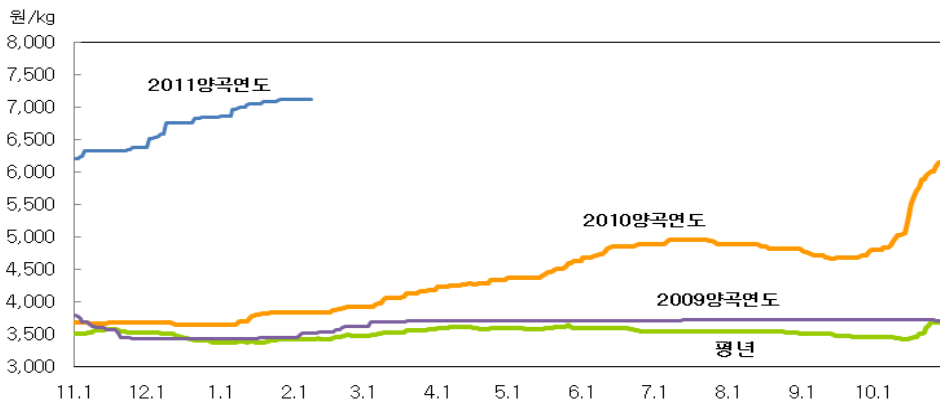
단위: 원/kg

양곡연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2009	상품	3,559	3,429	3,441	3,554	3,694	3,711	3,707	3,703	3,712	3,717	3,721	3,719	3,639
	중품	3,256	3,143	3,155	3,269	3,415	3,443	3,439	3,434	3,453	3,463	3,467	3,461	3,367
2010	상품	3,679	3,659	3,761	3,860	4,071	4,283	4,457	4,814	4,929	4,851	4,719	5,410	4,374
	중품	3,393	3,382	3,483	3,577	3,792	4,015	4,198	4,574	4,707	4,657	4,533	5,189	4,125
평년	상품	3,544	3,458	3,406	3,601	3,785	3,736	3,625	3,567	3,481	3,359	3,285	3,315	3,513
	중품	3,239	3,158	3,109	3,303	3,492	3,450	3,352	3,292	3,217	3,097	3,018	3,039	3,230

주: 2010년양곡연도는 2009년 11월~2010년 10월까지이며, 평년가격은 2005~2009년 동안 각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양곡연도 국산 콩 도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1월말까지 평균도매가격은 6,690원/kg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상승한 가격이다. 이같이 높은 가격이 형성된 원인으로는 2010년산 콩의 작황부진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와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연간 필요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국산 콩 가공업체들의 수요가 꾸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9-8. 국산 콩 일별 도매가격 추이(백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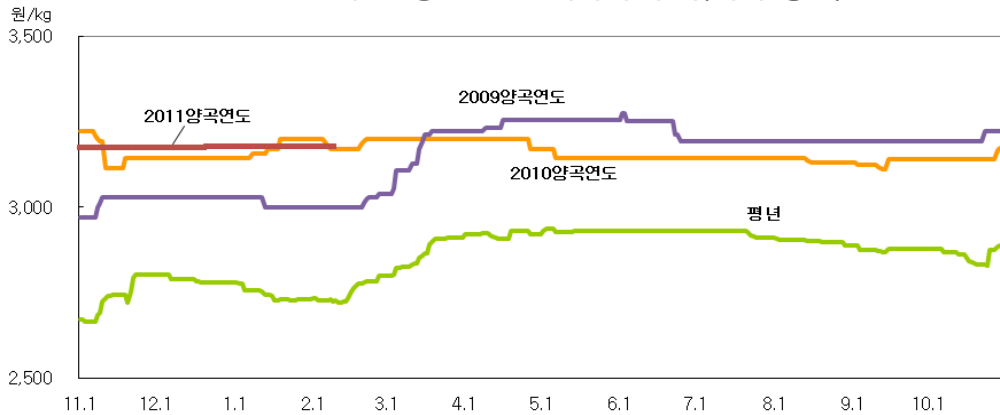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2. 수입 콩 가격 동향

- 국제 콩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2010양곡연도 수입 콩 중품 평균 도매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 하고 있으며 3,174원/kg으로 전년 대비 0.4% 높은 수준이다. 수입 콩 도매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하고 있으며, 국산 콩 도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국산 콩 수요처가 가격이 낮은 수입 콩을 본격적으로 소비하게 되면 향후 수입 콩 가격은 강보합세가 될 것이다.

그림 19-9. 수입 콩 일별 도매가격 추이(백태 중품)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중국내 콩나물 콩 거래가격은 2010년산 콩나물 콩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면서 10월 들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중국산 콩나물 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내 산지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9-10. 2010년 중국내 콩나물 콩 거래가격

단위: 위안/톤

구분	규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련	소립종	8,750	8,750	8,700	8,450	8,250	8,250	8,075	8,150	8,150	6,550	6,600	6,600
수출	중립종	5,450	5,450	5,450	5,050	4,900	4,650	4,550	4,550	4,550	5,150	5,650	5,650
기준	대립종	5,350	5,350	5,350	5,050	4,900	4,650	4,550	4,550	4,550	5,150	5,600	5,550

주: 대련항 무역상수매 월별 평균가격이며 감모 및 이윤포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두류관리팀.

### 3 콩 수급 및 가격 전망

#### 3.1. 2011년 전망

- 2010년 정부비축 콩 구매계획은 논콩 11,100톤, 발콩 3,000톤으로 총 구매량은 14,100톤이었으나, 2010년산 정부비축 콩 구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올해 콩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산지가격이 정부구매가격보다 80%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콩 표본농가 649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1년 콩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12.7% 증가한 8만 505ha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콩 재배의향 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산 국산 콩 작황부진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으며, 이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논콩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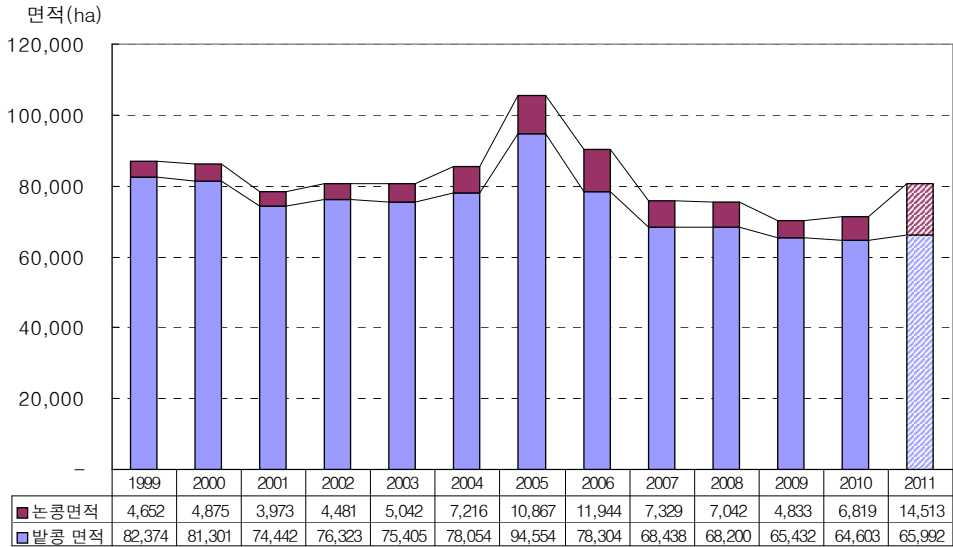
표 19-11. 2011년 콩 재배의향 면적

	발콩	논콩	합계
2010년(추정치)	64,603	6,819	71,422
2011년(전망치)	65,992	14,513	80,505
증감률(%)	2.2	112.8	12.7

주: 농업관측센터 콩 표본농가 649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2011.1.3.~2011.1.11 조사).

- 2011년 논콩과 발콩 별로 재배의향면적을 살펴보면, 2010년산 국산 콩의 작황부진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발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6만5,992ha로 전망된다. 전체 콩 면적의 10% 수준인 논콩 재배면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9-10. 발콩, 논콩 재배면적 추이



주: 2011년 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1년 콩 재배의향면적인 8만 505ha에 평년기준 단수(165~175kg/10a)를 가정하면, 2011년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17~24% 증가한 13만 2,834~14만 884톤으로 전망된다.

표 19-12. 2011년산 콩 생산량 전망

	2010년산	2011년산
면적(ha)	71,422	80,505
단수(kg/10a)	147	165~175
생산량(톤)	105,345	132,834~140,884

주: 1) 2011년산 재배면적은 콩 표본농가 조사치,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콩나물콩을 포함한 전체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임.

- 표본농가 133호를 대상으로 콩나물 콩 파종 의향을 조사한 결과, 2011년산 콩나물 콩 파종면적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7,574ha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산 콩나물 콩 재배의향 면적은 7,574ha 정도로 생산량은 1만

2,097~1만 3,371 톤으로 추정되며 지역별 작황상황에 따라 평년단수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추정하면 올해 콩나물 콩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0.3~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로 콩나물 콩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주로 2010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서부지역에서 가격이 좋았던 채소류 및 감자, 메밀 등 타 작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외에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의 콩나물 콩 재배면적은 각각 14.0%, 1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논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일부 콩나물 콩의 재배면적도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표 19-13. 2010년산 콩나물 콩 생산량 전망

	2010년산	2011년산
면적(ha)	7,714	7,574
단수(kg/10a)	156	159~172
생산량(톤)	12,060	12,097~13,371

주: 제주지역 면적의 95% 가량을 콩나물 콩으로 추정, 이외 전남, 전북 재배면적의 경우 국립종자원 보급종의 파종면적 6kg/10a를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치임.

- 2011년산 전체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산 수확기 콩 가격(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1.5~32.5% 하락한 4,300원~5,000원/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4. 2011년산 수확기 가격 전망

	2010년산	2011년산
생산량(톤)	105,345	132,834~140,884
수확기 가격(10~1월)	6,367원/kg	4,300~5,000원/kg

주: 2011년산 생산량 및 수확기 가격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 3.2. 중장기 전망

- 중장기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는 한·EU FTA가 2011년 7월부터, 한·미 FTA가 2012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미 FTA 발효 시 식용콩의 무관세 수입쿼터는 1년차 1만 톤, 2년차 2만 톤, 3년차 2만 5,000톤, 4년차 부터 매년 3%씩 복리로 시한 제한 없이 증량하게 된다. 한편 한·EU FTA 발효 시에는 식용콩의 현행 관세(487%)가 유지된다.
- 현 정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국내 생산이 부족한 콩 등의 발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에 벼 대신 콩,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과 타작목 재배간의 소득차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2011년은 4만 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준비중에 있다. 또한 권역별 콩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Soy-Belt를 조성하여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등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들 또한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산 콩에 대한 신뢰가 높아 국산 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할 것으로 보이며, 국산 콩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콩 재배면적은 2016양곡연도에 10만 7,000ha, 2021양곡연도에 11만 6,000ha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5. 콩 수급 전망

양곡연도	재배면적 (천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식용 수입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2010	70	198	139	326	8.5
2011	71	147	105	355	8.4
전 망	2016	107	172	418	8.9
	2021	116	175	431	9.0

자료: 통계청, KREI-KASMO 2010.

-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인해 콩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콩 생산량은 2016양곡연도에 18만 4,000톤으로 늘어나고, 2021양곡연도에는 20만 4,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발효로 인하여 무관세 수입쿼터량이 증가하면서 식용콩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은 41만 8,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양곡연도에는 43만 1,000톤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콩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6양곡연도에는 8.9kg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양곡연도에는 9.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콩과 콩 가공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향후 콩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